

## 「하차연 작업 해제」

### 자리 잡기 Localisation

하차연은 1983년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 프랑스 님므 대학과 푸와티에 대학,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수학했다. 당시 님므 미술 대학의 교수진은 진보적인 예술가 그룹 ‘쉬포르 쉬르파스Support/Surface’가 주축이었다. 1970년대 결성된 쉬포르 쉬르파스는 회화를 떠받치는 ‘받침대 Support’와 화면을 뜻하는 ‘표면 Surface’를 의미한다. 이들은 파리 중심의 미술 제도와 시장에서 회화는 자본주의 지배이념과 결부되어 상품화되었다고 비판하며, 회화에 개입한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캔버스의 나무틀을 빼고 회화가 하나의 직물, 물질적 천이며 표면임을 확인시키고자 했다. 68 혁명 이후 반자본주의, 반모더니즘에 기초한 이들의 관점은 전후 프랑스 추상 회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 한편 사회주의 리얼리즘 회화의 설명적이고 선동적인 미감과는 상반된 방식으로 그린 이들의 회화는 비정치적이고 단순하며 장식적인 추상으로 구현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함께 하차연은 한국과 서유럽 사회의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경험했다. 1980년대 이후 편리함과 효용성을 강조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기업들의 마케팅과 광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쓰레기 과잉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하차연은 작업 안에서 시작한다. 한국 남부, 프랑스 남부와 독일 북부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안에서 살면서 예술가로서 제 정체성과 지역에 자리 잡는 방식,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을 시작한다. 작가가 ‘자리잡기’의 의미로 번역한 ‘Localisation’은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표기가 모두 같다.

#### 〈나를 불태우다〉 Je me brûle ( burn me ) | 설치-퍼포먼스 | 1987

하차연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생수를 구매한다는 행위, 대량 유통되기 시작했던 플라스틱 생수병,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국가적 님비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목도한다. 플라스틱은 생산과 동시에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초기부터 알았음에도 어떠한 대책 없이 기업들은 유통을 서둘렀던 상황이었다. 작가는 이 현상을 단순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대신, 이 현상을 둘러싼 서유럽 자본주의 구조에 관한 질문을 시작한다. 19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관한 비판적 질문을 확장한다. 〈나를 불태우다〉에는 1980년대부터 버려진 소비재를 소재로 삼아 예술적 쓸모를 찾아가는 작가의 첫 시도가 담겨있다. 〈나를 불태우다〉는 1987년 프랑스 님므 미술대학 재학 당시 저녁마다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도심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페트병을 담아 온다. 다음 날 스튜디오에서 페트병 상표를 하나씩 제거한 후 이를 태우고 물을 끼얹는 행위를 반복한다. 작가는 가슴에 ‘Ha Ca Youn, Made in Korea’라고 적힌 작업복을 착용하여, 서유럽 관객과 출생이 다름을 강조한다. 작가는 매연 독가스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미칠 작업을 일 년 가까이 지속했고, 관객은 가스와 열기에 퍼포먼스 공간을 떠나기도 했다. 불에 탄 페트병 오브제, 시멘트, 철제 구조를 이용하여, 나무 가지들이 한 창문에서 다른 창문으로 뻗어 연결된 시커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 〈모 심기〉 Reis pflanzen(planting rice ) | 퍼포먼스 | 1987-1988

하차연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체류했던 1988년 행한 퍼포먼스 작업이다.

독일을 떠나면서 작업실에서 퍼포먼스 <모 심기>를 진행했다. 독일은 생수를 소비한 후 페트병은 생산지에 되돌려주는 계약 조건으로 자국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펼쳤다. 독일에서 버려진 페트병을 구할 수 없었던 작가는 버려진 신문지를 작업에 활용한다. 당시 독일에서는 2-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학교에는 무료 신문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하차연은 신문을 찢고 동전을 넣어 꼬아서 제기 모양의 오브제를 만들고, 이를 쌀(모)이라 명명했다. 공동 작업실의 시멘트 바닥과 벽면은 데생과 오브제로 채워 나가고, 잘린 나무 기둥은 나날이 변해 갔고 바닥에는 수거한 대형 광고지를 찢어 나무 등치가 되도록 커커이 쌓아 올렸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작가가, 독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쌀을 이식하는 작업이었다. 프랑스에서부터 줄곧 입고 있었던 작업복 'Ha Ca Youn, Made in Korea'를 벗어 실내에서 태워 없애는 것으로 퍼포먼스는 끝났다.

### <이동> AUSZUG | 1993-1995

1993년부터 2년에 걸쳐 총 3회의 개인전 «이동 AUSZUG»을 개최했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 공부를 마친 하차연은 하노버로 이주한 후 1983년부터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며 여행을 다니게 된다. 단어 'AUSZUG'는 '이동', 혹은 '발취'라는 뜻으로, 그 뜻처럼 기존의 전시 공간이 아니라 본인이나 타인의 작업실을 전시 공간으로 사용했다. 1983년 이후 유럽을 이동하며 지낸 경험과, 1994년 하노버로 이사한 경험을 담아낸 자전적인 내용의 전시이다.

#### 이동 1 AUSZUG Teil 1

##### <솔로, 시리즈의 끝> Solo, la. In de série, 1993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학교의 조각가 아틀리에에 주거 관련 오브제를 설치한 작품이다. 하차연은 이 오브제들을 이용하여 은퇴한 교수의 아틀리에를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바닥에 놓인 2층 침대와 그 침대에 오를 계단은 벽면에 기대어 있다. 여담이가 아닌 미담이문, 철재 계단 옆에 기대어 서 있는 계단모양의 합판,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하는 폴라로이드 사진과 그 위의 잘린 화분의 잎,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기다란 지우개와 물침대라 명명한 사포로 쌓인 얇은 판들은, 높은 천장에 비해 강조된 좌석 식 생활공간이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하차연이 처음 머물렀던 공간의 크기와 성격을 차용한 설치 작업이다.

#### 이동 2 AUSZUG Teil 2

##### <단어들> Les mots & Die Wörter | 하노버 | 1994

불어와 독일어로 반복된 전시 제목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생활 경험이 반 반씩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전시다. 다양한 설치물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를 헤집고 다니거나 혹은 둘을 싸잡아서 하나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다. 4층 작업실로 끌어올려진 철로와 비닐봉지에 프랑스와 독일의 주소들이 쓰인 철로목, 철조물 등은 벽과 건물 바닥이 부담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진다. 비닐로 된 투명한 책, 80년 이후 사용한 사전 등 독일과 프랑스 사이를 이동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옮겨왔다. 작업실을 작업 생산을 하는 곳 뿐만 아니라 대화의 장소로 변화시켰다.

#### 이동 3 AUSZUG Teil 3

##### <시간 히치하이커> Die Zeittramperin, 하노버, 1995

실내 및 실외 공간에 설치. 거리의 상황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왔다. 아스팔트는 스튜디오의 바닥이 되었다. 하지만 스튜디오는 여전히 도로와 같고, 작가를 한 공간에 붙잡아두지 않는다. 장소를 이동하는 '히치하이커 Tramperin' 대신 시간을 이동하는 '시간 히치하이커 Die Zeittramperin'라는 독자적인 단어를

고안해 사용했다. 폐공장을 개조한 작업실 안에 아스팔트를 깔고 대형 광고 패널을 설치했고, 실외에도 대형 광고 패널을 설치했다.

## 스위트 홈 Sweet Home

〈스위트홈〉 Sweet Home | 하노버 | 1999

1990년 중반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서 보내오던 유학 지원금을 끊기게 되면서, 하차연은 청년 작가 지원 기금을 받으며 작업 활동을 이어간다. 생계유지가 쉽지 않았던 당시 자신의 상황에서 비롯해, 작가는 서유럽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작가가 거주하던 하노버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기리며〈하노버 엑스포 2000〉라는 대형 세계 박람회를 준비 중이었다. 작가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내쫓으려던 독일 경찰을 목격하게 된다. 회색 콘크리트 벽이 도시 풍경의 대부분이었던 하노버에서 화려한 색상의 도시 풍경은 대형 광고판뿐이었다. 1999년 단체전에서 하차연은 광고판 앞에 돛자리를 깔았다. 그 앞에는 〈Ich bin Künstlerin〉, ‘나는 (여성) 예술가입니다’라는 메모를 단 표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놓았다.

하차연은 2001년 파리국제예술공동체 시대 레지던시 Residencies Programme at th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에 참여하면서 파리로 이주한다. 이후 〈스위트 홈〉 연작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한 파리를 배경으로 2009년까지 진행한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2002년부터 자크 시라크 정부의 내무장관,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강력한 치안 정책과 시장 주도의 과감한 경제개혁을 주장한다. 불법체류자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3년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06년 ‘선택 이민’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더 강경한 입장의 법안을 통과시킨다. ‘우선 연대지역’으로 분류된 54개국에서의 국민들에게만 프랑스 체류증을 발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05년 프랑스 파리 교외인 클리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변전소에 들어간 무슬림 10대 소년 2명이 감전사한다. 이후 무슬림을 포함한 아프리카계 이민자들, 이들이 거주하는 교외 슬럼 지역에서의 시위가 벌어졌다. 사르코지는 ‘인간 쓰레기’, ‘깡패’라 부르며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강경 발언을 했고 시위는 파리 도심으로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하고 더 많이 벌자”라는 그의 대선 캠페인, 이민 반대 정책에 대한 보수 유권자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사르코지는 2007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스스로를 서유럽 사회의 이방인으로 여겨온 하차연에게 사르코지의 강경한 이민자 배제정책과 그의 대중적 인기와 대통령 선출은 시대적 문제로 다가왔다. 1986년과 1993년 파스쿠아 이민법을 시행할 당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면, 사르코지의 인기가 보여주듯 프랑스 사회는 우경화되고 있었다. 사르코지 당선 이후 도시 치안을 목적으로 노숙자 텐트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 방침을 시행했다. 낭만적 도시라는 환상을 대표하는 파리에서 작가가 마주한 현실을 제 예술 실천안에서 수행적으로 풀어낸다. 파리를 기록한 〈스위트 홈〉의 이국적 이미지는 프랑스 사회에서 서유럽 복지사회의 이면에 관한 불편한 현실을 기록한다. 작가는 예술가로서 이색적 풍경을 대상화하여 관찰하거나 인류학자처럼 객관적으로 이를 기록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프랑스 정부와 언론이 홈리스 문제를 다루던 관점, 홈리스 운동 단체 멤버가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얻게 되는 과정과 결국은 파리를 떠나 흩어지게 되는 홈리스들의 상황들을 관찰하고 작업 안에서 해석한다.

〈스위트 홈〉 Sweet Home | 파리 | 2004

파리 지하철역에 설치된 벤치는 한 자리마다 낮은 팔걸이가 있어서 홈리스가 누워서 잠을 자기에는 불편했다. 하차연은 좌석 높이를 팔걸이 높이로 올릴 수 있는 스티로폼 조각을 벤치에 설치하고 그

사용법을 보여준다. 평소에는 스티로폼 조각을 벤치 밑에 내려두고, 홈리스가 잠을 잘 때에만 벤치 위로 올릴 수 있는 설치 작업을 제작한다. 잠과 같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홈리스가 필요했던 것을 만들고 그 해결책을 예술 실천 안에서 보여준다.

〈파리를 걷다〉 **Balade dans Paris** | performance, photos, video(4min 48sec) | 2006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대형 카트에 형형 색색 플라스틱백을 채워 담아 파리를 거니는 퍼포먼스 영상과 사진 기록이다.

〈캐롤라의 여정〉 **Balade de Carola** | video(9min 37sec) | 2008

분홍색 플라스틱 백이 파리의 길거리를 바람에 따라 누비는 과정을 담았다. 살아있는 듯 춤을 춘다.

〈스위트 홈 2〉 **Sweet Home 2** | video photography, single channel video with 432 photos(mute, 29min 10sec) | 2005-2006

〈위탁 or 보관〉 **Consigne** | 사진 | 2005

하차연이 매일 산책하며 마주한 생마르팽 운하 주변의 상황에서 비롯한 작업이다. 제 주거권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홈리스에게, 프랑스 정부는 텐트 설치마저 금지 시킨다. 사진에는 세느 강변에 늘어선 가로수 나뭇가지 사이에 형형 색색의 플라스틱 봉지가 걸려있다. 텐트를 설치할 수 없던 이들이 낮에는 제 살림살이를 봉지에 담아 나무 위에 올려 두고, 저녁마다 봉지에 담긴 살림을 풀어 끼니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작가는 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그 고단한 일상을 담담하게 사진으로 기록한다. 작가는 스스로를 예술가라는 정체성 없이 〈스위트 홈〉 연작을 진행했다고 말한다. ‘파리 노숙자 현실을 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겠다’라는 저자의 위치를 갖기보다는, 이 상황을 기록하여 이를 보지 못했던 많은 이들과 제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겠다는 방법을 택한다. 하차연은 파리 홈리스와 함께 이방인, 불법체류, 국가 정책 등을 동시에 살피게 되었다. 건강 보험 등의 좋은 복지 정책도 많지만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 문제가 제일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하차연은 낯설지만 실재했던 파리의 상황을 기록하고, 삶이 가질 수 있는 시적 감각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야영지의 기록〉 **Journal d'un campement / a camp journal**, 다큐멘터리 영화, 47분 41초, 2008

〈야영지의 기록〉은 2006-2007년 겨울 5개월 간 자선 단체 〈돈키호테의 아이들 Les Enfants de Don Quichotte〉이 홈리스들을 모아서 프랑스 정부의 주거 정책에 반대하는 텐트 시위를 진행했다. 일부 시민들이 동참하여 연대했고, 셀레브리티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지지 선언을 하며 200명 규모의 텐트 캠프에 참여한다. 참여한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체류증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의 1/3을 받고 일을 해야 했다. 이들은 주거, 의료, 노후 보장과 같은 프랑스 빈민자와 동일한 법적 보장을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에게 각종 증빙 서류와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 말하며 전 과정을 지연시켰다. 단식 투쟁을 벌이며 시위를 이어갔지만, 〈돈키호테의 아이들〉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그들의 운동에서 단식 투쟁자의 활동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홈리스들은 그들이 원래 지내던 구역으로 돌아가고 텐트 수는 줄어갔다. 프랑스 언론은 이런 상황을 다루는 대신, 홈리스가 돈키호테의 아이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메시지만을 방송에 내보낸다.

돈키호테의 아이들의 주도자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홈리스들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하차연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있는 곳에서 자리 잡기’이다. 이주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사회의 활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늘 요구받았다. 마산에서 성장한 작가의

시각은 서유럽 사람들의 시각과 달랐다. 하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이를 소유하는 방식을 예술 안에서 고민한다. 작가는 ‘해맑은 사람이, 이념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왕족 체제나 군부 체제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한편 시민이 제 정치 체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늘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차연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다시금 질문한다.

#### 〈스위트홈 4〉 Sweet Home 4, 비디오, 7분 59초, 2009

고속도로 옆 스산한 공터에 오래된 여행가방들이 널브러져 있다. 굴착기가 다가가 여행가방을 집어 올리고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퍼포먼스는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내몰린 이주민의 삶을, 굴착기에 의해 마모되어가는 여행 가방으로 은유한다. 장소의 특징이 불분명한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변두리 이른 아침. 가방, 매트리스 등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들이 한 곳으로 던져지고 굉음으로 달려오는 크레인, 삽 등의 도구들로 밀리고 던져지며 피폐해진다. 노숙인, 불법 이민자, 강제 이주 등의 상황을 연상할 수 있다.

#### 〈쪽방 프로젝트〉 Jjockbang Project, 2013

해방 이후부터 시작한 쪽방은 한국에서 오래된 불법/편법 주거 형태다. 7천 원 내외의 일세를 내는 형태로 유지되는데, 빈곤층에게는 불안정하고 임시적이지만 실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m<sup>2</sup>에서 6m<sup>2</sup> 사이의 작은 방에서 1인 가구가 독거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불법/편법 주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건물 내부의 불법 개조를 파악하고 적발하기 어려우며, 도시 내 가장 저렴한 주거의 형태를 엄격하게 단속할 경우 홈리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규제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묵인한다는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정부의 입장이 함께 한다.

1983년 프랑스로 떠나, 30년이 지난 지금 작가 스스로가 외부인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쪽방에 대한 무관심은 최악의 태도라고 믿으며 〈쪽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스위트홈〉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노숙자,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비거주문제를 화두로 한 2013년 퍼포먼스 영상기록 《영등포》로 이어간다. 사회적현상 중 다양한 형태의 강제적 이주, 개인적 고립 등 복지사회의 이면을 주목함과 동시에 정치, 사회적 관점의 경계에 놓인 아웃사이드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작가는 서울의 주거환경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도시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연결 지점을 만들어 낸다.

양지윤, 2023